

생명위기 시대에서 생태 민주주의의 역할

가타리의 생태학적 구도와 주체성 논의를 중심으로

신승철

동국대 강사

〈논문요약〉

생태 민주주의는, 생태계 관계망처럼 개인과 공동체 간의 올바른 상호작용을 이루며, 경제성장이 아니라 재생과 순환의 공동체경제의 내포적 발전을 이룬다는 상을 가진 대안적인 민주주의 유형이다. 생태 민주주의는 생명, 생활, 생태를 통해서 기본적인 구도를 그려낼 수 있다. 먼저, 생태 민주주의는 생명과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올바른 관계정립이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인권에서 생명권으로 이행을 촉진한다. 둘째로, 생태 민주주의는 육식, 자동차, TV, 아파트와 같은 현재의 자본주의의 정상적 생활이 지속불가능하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생활정치를 촉진한다. 셋째로, 생태 민주주의는 자기생산적이고 자기조절적인 생태를 사고하지만, 그 조정능력을 초과하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상황에서 주체성 생산을 요구한다. 이러한 주체성 생산은 전체생태계에 심원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생태 민주주의는 가타리의 마음생태, 사회생태, 자연생태를 통해서 전략적인 과제를 구상할 수 있다. 먼저, 마음생태는 심층생태론의 생태형성의 논의를 도입하여 주체성 생산의 과제로 제출한다. 둘째, 사회생태는 머레이 북친의 사회생태론의 기술사용과 사회변혁의 논의를 도입하여 사회적 배치의 변화와 주체집단의 논의를 과제로 제출한다. 셋째, 자연생태는 환경관리주의를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환경정치를 과제로 제출한다. 이에 따라 생태 민주주의는 생태계의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망과 같이 관계성

창발과 주체성 생산이 가능한 매우 역동적인 구도로 그려진다.

■ 주요어: 내포적 민주주의, 주체성 생산, 제3섹터, 지속가능한 발전, 네트워크이론

1. 들어가며: 생명위기의 시대에 직면한 한국사회

2011년이 시작된 겨울 구제역사태로 인해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생매장되는 상황에 직면했고, 시민들은 생명위기의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사회가 어떤 변화를 가져야 할까를 고민하였다. 한국사회 내에서 민주주의와 성장담론을 함께 언급하던 시대가 끝났고, 공동체 차원에서의 내포적 발전과 민주주의가 함께 논의되는 생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제기가 꾸준히 있어왔다. 그러나 실질적인 환경정치나 환경정책에서 그러한 문제제기가 영향력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미미한 목소리로 남고 있다. 또한 생명위기 시대에 한국사회가 인권을 넘어 생명권의 영역까지 확장된 시선을 가져야 한다는 담론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과 공동체가 생명의 영역을 고민하고, 생명가치가 경제적 가치보다 우선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기하였다. 이를 테면 구제역이 한창일 때 종교계회의에서 생명담론을 적극적으로 얘기하면서 육식문명을 반성하고 자숙하자는 목소리를 냈던 것을 들 수 있다(경향신문 2011/2/8). 생명위기 시대는 기존의 통속화된 삶의 방식이 아니라,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고민해야 할 시점을 의미한다. 육식, TV, 아파트, 자동차로 대표되는 삶의 형태와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성장주의의 괴물을 문제시하지 않고서는 생명위기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단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번 2011년은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이 실종되고 열대우

기의 비가 내리치는 기후였던 해이기도 하다. 화석문명, 원자력문명, 속도 문명, 육식문명 등의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구와 자연에게 엄청난 하중을 주었고, 그 압박은 생명과 인류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치달아가고 있지만 반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생명위기 시대에 직면한 한국사회구성원들은 근대화와 진보주의의 미명하에 이루어진 도구주의적 사고방식인 “프로메테우스적 발상”(드라이어 크 2005, 89)을 넘어서서 자연과 인간이 공생공존할 수 있는 색다른 문명과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의 역동성은 산업화와 양상불을 이루며 발전해 왔기 때문에, 민주주의 패러다임의 생태적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생태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이 아직 미비하다. 예를 들어, 정치적 담론에서 민주주의를 박정희식 개발독재의 권위주의에 대한 대항 사회화전략으로 보고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모색하는 단계(최장집 2010, 82)로 보는 시각에서 머물고 있는 지점은 ‘성장과 민주주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사고방식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근대적 패러다임인 성장주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지구자연을 단순히 원료나 자산으로 보고 무한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환상에서 설계된 작품이라는 점이다. 1972년 로마클럽에서 발표되었던 「성장의 한계(The Limits of Growth)」라는 보고서가 처음으로 성장주의에 대해서 문제삼은 이래 지구자원은 하나의 상수로서 한계점을 명확히 갖는다는 인식론적 기반이 형성되었다(홍성태 2004, 204). 결국 이 보고서는 성장 무한성 태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 브루트란트 보고서의 지속가능한 사회 즉 “미래 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능력의 손상됨이 없이 현재 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에 대한 논의(하퍼 2010, 322)를 촉발시켰다. 지속가능성은 경제(Economics), 생태(Ecology), 평등(Equality)이라는 3E를 원칙으로 하지만 녹색산업구조재편이나 문명사적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청에는 미흡한 감이 있다.

생태 민주주의는 산업사회를 넘어서 생태주의 문명으로 진입하는 과

정에서 현 인류가 필요로 하는 체제의 방식이다. 『생태 민주주의』라는 책을 쓴 로이 모리슨(Roy Morrison)은 생태 민주주의를 “개인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민주주의와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드높여 건전한 공동체를 이룩하려는 생태주의가 의미 있게 복합된 체계라고 할 수 있다(모리슨 2005, 8)”라고 정의한다. 생태 민주주의는 ‘연합’, ‘협동’, ‘연대’의 원칙에 의해서 구축된 협동조합, 소비자클럽, 생산자조합, 공동체 등으로 구성된 공동체와 개인이 상호작용하는 정치형태이다. 이 생태 민주주의하에서의 사회적 경제 체계는 공적 소유권과 사적 소유권의 이분법을 넘어서, 개인적 자산과 공동체적 자산의 영역으로 이루어진다(모리슨 2005, 257). 로이 모리슨이 그러는 생태 민주주의의 그림의 구도는 개인과 공동체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생태적 관계망의 일부이며, 서로 선순환적으로 작용하면서 공생진화하는 과정을 그려낸다.

이 논문은 생명, 생태, 생활이라는 3생의 원칙하에서 민주주의의 구도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생태 민주주의의 프리즘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다시 이것을 펠릭스 가타리의 『세 가지 생태학』(2003)의 구도를 통해서 재편성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두 개의 삼분법에 의해서 다이어그램화되는 생태 민주주의는 그 속에 또 하나의 삼원구도인 사적 경제, 공적 경제, 공동체 경제라는 구도를 숨겨두고 있다. 문명의 전환으로까지 가기 위해서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의미하는 바를 점묘(點描)하는 것은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전체론(holism)적 사유방식을 넘어서 부분의 변화가 전체의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는 ‘특이성 생산’의 사유방식을 의미한다. 물론 후자는 전자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생명위기 시대에 진입한 한국사회가 생태 민주주의에 대한 입체적인 이미지를 그려낼 수 있고, 복잡계의 증식·변이양상인 프랙털운동의 생명현상에 가까운 사회진화의 유형을 그려내도록 하나의 초석이 되는 것이 이 논문의 목표이다. 도토리 하나가 숲 생태계에서 떡갈나무 혁명을 일으키듯이 변화의 시작은 특이한 부분들의 발생에서 시작된다.

2. 생명 · 생태 · 생활의 재배치로서의 대안적 생태 민주주의

1) 생명과의 관계에 있어서 민주주의 구도의 변화

많은 논란 끝에 독일헌법 제 20a조에 “자연적 생활기반의 보호”라는 구절이 들어가는데, 그것의 내용은 “국가는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으로서 헌법질서의 범위 내에서 입법에 의거하거나 법률과 규범에 따른 행정과 판결을 통하여 자연적 생활기반을 보호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동물권과 생명권을 명시한 내용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향후 보다 확장된 권리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유권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다. 이러한 생명중심윤리적 관점은 “첫째,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똑같은 이유에서 지구공동체의 구성원이다. 둘째, 인간을 포함해 모든 종은 상호의존 체계의 일부이다. 셋째, 모든 생명체는 자기 고유의 방식으로 자기 고유의 선을 추구한다. 넷째, 인간이 다른 생명체보다 내재적으로 더 우월한 것은 아니다(테자르맹 1999, 237)”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이 생명을 도구적 수단으로 간주하는 모든 방식의 행동 및 사유방식을 기각한다. 이를테면 생명의 영역을 기계라고 보았던 근대의 철학자 데카르트(Descartes)와 같은 사고방식은 생명의 고유한 선(善)에 대해서 승인하지 않고 그저 물리적으로 작동되는 기계 톱니바퀴와 같이 사고한 것이다.

생명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인권을 포함한 의미를 가지며, 마치 생명권을 존중하면 인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식의 환경 파시즘과 맥락을 달리한다. 예를 들어 “심층생태론 《어스 퍼스트(earth first!)》에서의 가장 악명 높은 저자인 앤 트로피(Miss Ann Throphy)의 경우는 기아나 AIDS가 인구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반겼다(드라이제크 2005, 276).” 이러한 관점은 매우 극단적으로 인간에 괄호치는 사고방식이며, 심층생태론이나 동물해방론, 동물권리론 등이 모두 그런 노선에 따르는 것은 아니다. 생명권은 인권의 확장이며, 인간중심주의에서 생명중심주의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도

구적 이성과 같이 생명을 도구로 삼는 사고방식이 왜 문제인가?’라는 질문은 근대와 탈근대의 이행시기에 이루어졌지만, 더 깊게 들어가보면 파시즘의 발흥에 대한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성찰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추앙받고 있던 포드는 자동차 생산의 일관생산라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살장에서 얻었으며, 또 유태인 세계 지배의 음모를 주장하여 히틀러에게 영감을 주는 인종주의자이기도 했다. 이 포드시스템은 아우슈비츠 학살장에 적용되어 일관절멸캠프로 나타난다 (Patterson 2002, 74-79).

생태주의자 중에서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주장하는 생명운동을 개체중심주의로 보면서 전체주의적 시각과 대비시키는 논점이 심층생태론적 관점이다. 이에 따르면 “개별 유기체를 화학적, 생물학적 과정보다 덜 영구적이고, 덜 실재적인 존재로 볼 수 있으며, 개별 유기체가 다른 실체와의 관계에 의해서 구성된다는 형이상학적 결론을 생태학은 제안하고 고취하고 강화한다(테자르탱 1999, 344).” 이러한 사고방식은 네트워크와 같은 관계망 속에서 작동되는 생명현상을 개체중심주의로 규정하고 유기적 전체와 떨어뜨려서 사고할 위험이 있다. 생태계의 그물망의 그물코에서 생성되는 생명현상은 분리된 것이 아니다. 관계망에서 창발된 생명체는 유기적 작동방식인 관계망과 떨어져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분리시켜 사고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생명현상을 관계망이 창발한 특이성 생산으로 보고, 이 부분이 전체에게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가할 수 있으며 관계망과 별도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네트워크적 사고방식이 가능하다. 전체가 부분의 총합 이상으로 시너지 효과를 가지며 개체보다 관계망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개체중심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인간중심주의가 갖고 있었던 갖가지 폐단 때문이다. 그러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 인권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듯이 생명권이나 동물권을 지키는 것이 관계보다 개체에 착목하는 것만은 아니다. 또한 인간중심주의는 아닐지라도 인간이라는 부분의 변화가 생태계에 미칠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생명과 인간의 관계가 주는 의미는 파시즘의 사례와 같이 심대하다. 인간이 생명을 도구로 삼을 때 그것은 소수자, 주변인, 아이, 광인 등에 대한 태도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정립은 공동체적 관계정립과 미래세대를 위한 길이다. 국내 최초의 동물보호 전문지 『숨 1호: 인권을 넘어 생명권으로』(2007, 3)의 발간사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길이듯이 지구상의 약자인 동물들을 배려하고 생명체 간에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지구촌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생명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정립이 생태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단상을 제출하고 있다.

현재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생명을 이윤의 도구로 삼는 공장식 축산업과 같은 현실이 끊임없이 지구촌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공장식 축산업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면서도 동시에 광우병, 신종플루, 구제역, 조류독감과 같은 역병들이 공장식 축사의 어둡고 지저분하고 습한 환경에서 발생하고 있고, 돌연변이를 일으켜 언제든지 인간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이번 구제역 사태와 같이 생매장을 통한 살처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농민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생명경시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남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생명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생태 민주주의의 기본요건이며, 생명에게 고통의 상흔을 남기며 도살하거나 미각의 재미를 위해서 열악한 상황으로 내모는 것은 결국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의 내재성의 구도에 심대한 영향을 준다.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는 인권에서 생명권으로의 이행의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현재 한국사회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에 대한 태도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적 관계망에 포함시켜서 사고해야 하는 상황이다.

펠릭스 가타리¹⁾는 『세 가지 생태학』에 수록된 「볼 수 없는 것의 생태학」이라는 문건에서, ‘볼 수 없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볼 수 없는 것은 현실의 일부를 이루고 도시 차원을 이루며, 보다 스피노자풍의 말로 해석하면 자연의 차원에 속합니다. 적어도 깨끗한 공기, 결국 볼 수 없는 공기를 지키자고 하는 생태학은 오히려 신선한 공기가 통하는 볼 수 없는 것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가타리 2003b, 72)”라고 말한다. 생태민주주의의 관계망은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관계망의 문제이며,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인간의 보이지 않는 관계의 변화는 전체사회와 생태계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를테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반려동물과의 정은 인간의 정으로 나타날 수 있는 내재적인 관계망의 하나이다. 한국사회에서 생태민주주의는 보이지 않는 것의 생명과 인간의 관계정립까지도 포함하며 이제까지의 민주주의의 차원을 넘어서 완전히 확장된 차원의 논의를 가능케 할 것이다.

2) 생활 형태의 변화와 민주주의 구도의 변화

생태 민주주의는 현재의 경제체제가 갖고 있는 생활형태를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기후변화와 같은 막강한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자본주의의 스테레오타입화된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육식, TV, 아파트, 냉난방기구 등은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삶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대부

1) 공산주의자, 정신분석학자로 알려져 있고, 1968년 운동의 도화선이 된 3.22운동을 주동한 인물, 들뢰즈와 함께 『천개의 고원』과 『양피 외디푸스』를 서술하기도 함. 1980년대 후반 가타리는 생태적 문제의식을 발전시켜 『카오스모제』와 『세 가지 생태학』을 집필하였다. 가타리는 프랑스 녹색당의 당원(이중가입)으로서 이론적, 실천적 활동을 정열적으로 수행했으며, 1992년 3월에 실시된 프랑스 지방의회선거에서 생태파 후보자 명단의 끝에 들어가기도 했다.

분의 삶이 탄소중독적 삶의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때문이다. 현재의 상황은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이산화탄소 배출은 전 세계적으로 9% 증가했고, 미국의 경우 이보다 두 배의 비율로 증가했다. 1990년대 중반에 이르자 80여 개 국가에서 전 세계 인구의 40% 정도가 이미 심각한 물 부족을 겪게 되었다(포스터 2010, 183)”라는 글에서도 단적으로 나타난다. 현재의 탄소농도에 대한 위협성을 보고한 「스틴 보고서」에서는 지금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385ppm이며 섭씨 2도(화씨 3.6도) 이상 온도가 상승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이 450ppm이라고 경고하고 있다(포스터 2010, 79). 현재의 삶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신자유주의적 무역정책이나 경제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인류의 생존에 있어서 재앙과 같은 상황을 의미한다.

존 벨라미 포스터가 쓴 『생태혁명』(2010)은 환경문제에 경제학자들이 얼마나 무지와 무능을 갖고 있는지를 예일 대학의 경제학자 윌리엄 노드하우스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가 사이언스(Science)지 1992~1993년도에 기고한 글에서 현재의 기후변화 추세가 계속된다면 2100년의 세계 총생산에 미치는 손실은 무시해도 좋을 수준이며(약 1%) 지구 평균기온이 섭씨 6도(화씨 10도) 상승하더라도 경제는 정상운행을 지속할 것이라고 추론했다(포스터 2010, 37). 윌리엄 노드하우스의 글에서 기존 신자유주의자들이 얼마나 묵시록적이고, 계시록적인 단계에 들어섰는가를 분명히 보여준다. 파멸 이후에 소수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결국 경제는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은 엄청난 결과가 기다리는 벼랑을 향해 행군하는 군대와 같은 상황을 의미한다. 또한 산업화 이후에 가속되어 왔던 경제성장의 단맛을 알고 있는 기업과 정부가 얼마나 생명위기 시대에 둔감하며, 현재의 삶이 계속되리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서울 도시를 불야성으로 만들고 밤마다 축제가 벌어지는 곳이 고깃집이다. 이 고기를 먹는다는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대한 성찰은 생명을 도구로 삼는다는 점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육류소비를 위해서 만들어

지는 공장식 축사는 결코 지속되어서는 안 될 가장 위험한 공간이다. 「월드워치보고서」에 따르면 집단 밀집사육 과정에서 소의 방귀와 트림으로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메탄가스는 지구온난화의 51%를 차지할 정도로 막강한 환경파괴의 장소이다. IPCC(Intergovernment Panel of Climate Change, 기후변동에 관한 정부간 패널)의 2007년 보고서에 의하면 농업 부분 전체가 발생하는 인위적 온실 가스는 전체의 13.5%를 차지하고 있다고 조금 낮추어서 보고하고 있지만 여전히 위험성은 남는다. 2006년의 FAO(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는 「가축의 긴 그림자—환경 이슈와 옵션(Livestock's Long Shadow—Environmental Issues and Options)」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 보고서는 가축사육이 주는 탄소순환과 질소순환, 도살 시 사용되는 물의 엄청난 양, 환경영향 등을 조목조목 얘기하고 있는데,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스가 단지 이산화탄소만이 아니라 가축이 발생시키는 메탄가스(이산화탄소의 21배)라는 점과 공장식 축산업의 대부분이 별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하급수적인 온실가스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육류소비자는 생태민주주의를 앞당기기 위해서 변화시켜야 할 생활형태 중 하나이며, 최소한 채식은 아닐지라도 ‘아주 더 적게, 제대로 알고, 제 값 주고’ 동물복지에 합당한 윤리적 소비를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에서는 국내 온실가스의 16.2%를 차지하는 수송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2년까지 140g/Km로 낮춘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물류신문 2011/6/14). 자동차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화석에너지를 지나치게 독식하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대부분 재생불가능한 에너지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동차와 여러 교통수단은 현재의 자본주의의 통속적 삶에서 속도문명을 가능케 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오일피크 이후에 변화하는 세계자본주의의 미래는 교통수단을 통해서 세계를 통합시키는 방향이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자급자족형 경제를 만들어어나가는 것이 더 필

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배나 비행기, 기차 등으로 세계시장을 통해서 운송되는 식량이나 상품 등은 화석에너지의 고갈에 따라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만들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많아지도록 설계된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순환경제 모델에 따라 의식주를 해결하는 자조적인 노력이 없이 세계시장에 의존하는 것은 더 이상 지속가능한 모델이 될 수 없다. 또한 정상적인 삶이라고 여겨지는 속도문명은 ‘더 빨리, 더 많이’라는 슬로건 하에서 이루어진 산업사회의 산물로서 속도를 내면 낼수록 환경파괴가 많아진다는 역설을 갖고 있는 기괴한 성장의 산물이다. 생태 민주주의를 앞당기기 위해서 이러한 생활형태는 변화해야 하며, 무한경쟁의 속도사회는 순환과 재생이라는 느낌과 여백의 사회로 재편되어야 한다.

이 모든 정상적이라고 불리는 생활형태를 재생산하는 것이 바로 TV이다. TV 속에서는 맛깔 좋게 생긴 고기, 화려한 등불을 켜 아파트, 속도를 무한정 내는 자동차가 더 좋다는 방식으로 무의식을 주조해낸다. 이른바 탄소무의식이라고 불리는 ‘TV가 생산해 내는 무의식’은 탄소소비가 많을수록 더 부유하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만든다. TV는 통합된 세계 자본주의하에서 자율적으로 주체성이 생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무의식 통제장치라는 것이 가타리의 진단이며, 이러한 매스미디어는 자본주의의 외부를 볼 수 없도록 최대한 달콤하게 부드러운 억압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억압이 소형화되고 부드러워지는 이유는 분자적 수준에서의 변화가 전체네트워크를 뒤흔들 수 있는 현재의 네트워크 사회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가타리 2004, 340-349). 즉, 부분의 변화가 전체 생태계에 막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전자적 네트워크와 생명의 네트워크가 편재되고 있는 상황에서 TV는 부분의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초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수단인 것이다. 생태 민주주의 사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매스미디어에 의한 무의식통제가 먼저 사라져야 하며, 이것은 맨더(Mander)의 『텔레비전을 버려라』(2002)와 공명하는 지점에 있다.

현재 문명의 스테레오타입화된 방식의 삶은 지속 불가능하며, 변화의

도도한 조류 앞에 서 있다. 그래도 삶의 형태의 변화는 급격한 충격에 의한 변화도 있지만 완만한 개혁주의의 영향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1991년에는 생활폐기물 중 89.2%를 매립처리하고 7.9%만을 재활용하였으나, 1997년에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등으로 매립처리 비율이 63.9%로 줄어들고 재활용률이 29%로 증가하였다”라는 통계(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 재활용뉴스게시판 2004/8/1)만 보더라도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활에서의 변화가 생태 민주주의에 가장 기초적인 영역이라는 점은 모든 생활습관—예를 들어 수세식 화장실까지도—에 관련된 문제이다. 그리고 그 변화를 만드는 것은 지금의 삶의 방식처럼 미친 듯이 쓰고, 미친 듯이 벌고, 미친 듯이 노는 문화가 아니라, 조금 벌고, 조금 일하고, 나누어 일하는 공동체 문화에서부터 출발한다. 성장주의는 성공주의/승리주의적 삶의 문화에서도 잘 드러나며 이러한 문화와 삶의 방식의 극복이 생태 민주주의의 첩경인 것이다.

3) 생태적 대안 논의와 민주주의 구도의 변화

자연환경은 인간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라기보다는 생태계로서 연결되어 있고, 독자적인 자기제작 능력을 갖고 있는 영역이다. 4대 강 사업의 문제점은 복잡계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자연을 인위적으로 가공해 낼 수 있다는 근대의 개발주의 기획에 여전히 입각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자연환경은 물리적 현실로서 인간이 조작해 낼 수 있는 수준의 것이라고 사고하는 것에서 탈피하는 것이 생태계로서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생태계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사고방식은 따로 떨어져 있는 나무 100그루보다 연결되어 있는 50그루의 나무로 이루어진 숲이 더 외부환경에 맞서고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강하다는 사고방식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숲이라는 시스템적 연결망은 분리되어 있는 개체보다 더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연결망에서 창발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살아있는 시스템들을 연결망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이른바 자연의 계층구조에 대해 새로운 통찰을 주었다. 살아 있는 시스템들이 모든 수준에서 연결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그물을 다른 시스템(연결망)과 연결망이라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살아 있는 시스템(연결망)으로 사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생태계를 몇 개의 접속점을 갖는 연결망이라고 시스템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카프라 1998, 56).

자연환경이 단순한 물리적 개체가 아니라, 상호의존하며 연결되어 있는 생태계라고 사고하는 것이 생태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자연환경에 대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속에서 생태계가 순환하고, 창발하고, 재생되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사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여기서 생태계를 연결망으로 보는 사고방식은 인간사회 내부에 있는 공동체와 사회집단, 네트워크에 대한 사유로 전개될 수 있다. 생태계는 외부에 대해서 무한정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폐쇄성을 갖는 것처럼 외부에서 느껴질 수 있는 내부 메커니즘이 있다. 그러한 점 때문에 공동체집단을 바라볼 때 일종의 폐쇄성을 갖고 있지 않은가라는 의혹을 갖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마투리나와 바렐라가 언급했던 자기생산(*autopoiesis*)의 본성 때문이다. 우리가 하루에 먹는 많은 양의 음식이 뼈와 살, 간, 피부를 자기생산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외부로 향하는 재생산(*reproduction*)이 아니라 내부로 향하는 자기생산을 위한 활동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자신의 관심이 구조가 아니라 조직임을 분명히 하면서, 두 저자마투리나와 바렐라는 자기제작의 정의를 모든 살아 있는 시스템들에 공통적인 조직(*organization*)이라고 내렸다. 그것은 생산과정들의 연결망이며, 그 속에서 각 구성요소의 기능은 연결망에 속하는 다른 구성요소들의 생산과 변환에 가담한다. 이런 식으로 전체 연결망은 지속적으로 스스로를 제작한다(카프라 1998, 138).

이러한 자기생산의 원리를 생태계에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가타리는 바렐라의 자기생산 개념을 도입해서 기계(machine)라는 개념을 창안한다. 기계는 “그 구성요소들 자체와 관계없이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들의 집합체”로 특징짓는다. 따라서 자신 이외의 것을 생산하는 타자생산과 자기생산을 엄격히 구분하는 바렐라가 기술기계, 사회기계를 타자생산에 입각하였다는 평가하는 것과는 달리 기술기계, 사회기계 역시도 기계적 배치의 입장에서 자기 생산적임이라고 가타리는 주장한다(가타리 2003a, 58). 이러한 가타리의 개념적 사고방식이 갖는 장점은 생태계를 생명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생태계와 기술적 생태계, 기계적 생태계 등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지점은 가타리의 ‘세 가지 생태학’ 개념을 배태할 수 있던 가장 기초적인 사유의 원천이 된다. 이러한 가타리의 생각은 네트워크라는 전자적 연결망 시스템 속에서 지식정보의 생태계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는 생태계의 자기생산의 능력이 자연생태계에만 한정되지 않고 기술과 사회 자체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가타리의 기계개념은 생태계에서 부분의 총합이 산술적 합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는 종합적 사유방식을 전제하면서도, 연결망 속에서의 부분의 변화가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초래한다는 생태계 구도에 대한 업그레이드된 생각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기계개념에 따라서 기술은 단순히 도구로서 사용되어야 할 차원이 아니라 전체 생태계나 네트워크에서 기계작동을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움직여 나가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전체에 작용을 가할 수 있느냐, 즉 특이성을 생산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진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점은 복친의 사회생태주의가 보여준 기술 사용의 긍정이라는 측면을 보다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기술의 작동양상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친환경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근대적 개발주의의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를 벗어난 것이 아니며, 완전히 다른 기계작동을 통해

서 전체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 및 공동체의 기계작동의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생태 민주주의의 문제의식인 생태계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와도 긴밀한 관련이 있다.

생태계의 순환과 자기생산, 자기제작, 자기조절의 입장에서 볼 때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생태계 스스로가 정화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다. 『가이아』의 저자 러브록(Lovelock)은 “지구의 모든 생물은 하나의 살아 있는 실체를 구성하며, 그 실체의 구성원들 각자가 갖는 능력의 합보다 훨씬 거대한 힘을 발휘한다는 가설을 [수립하고,] 지구의 대기권이 지표면의 생물들, 즉 생물권에 의해 능동적으로 유지되고 조절된다는 가설” [—가이아 가설—을 수립한다](러브록 2004, 35-53)”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자기제작하는 생태계라는 사상적 기반을 현장연구를 통해서 입증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그가 생각했던 대기권과 생물권이 자기조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고방식은 하나의 난점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탄소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해서였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The Revenge of Gaia)』라는 책에서 지구의 불길한 전망에 대해서 말하는데, 기온상승이 해조류와 열대우림의 파괴로 인해 이산화탄소 흡수능력을 떨어뜨리고 북극권 영구동토 밑에 있는 막대한 양의 메탄가스를 대기 중에 방출하면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는 것이다(포스터 2010, 62). 러브록은 가이아이론이라는 낭만적인 이론에서 갑자기 비관적인 전망으로 이행하며, 그 과정에서 아주 괴로운 심경을 토로한다.

러브록의 극히 비관적인 견해에 따르면 지구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고, 기온은 결국 섭씨 8도(화씨 14도)나 올라가게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도 인류는 어떻게든 살아남겠지만 러브록은 “심각한 기후변화로 지옥 같다고 할 만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지독한 더위 때문에 지금의 북극대는 수십억 인구 가운데서 오직 소수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포스터 2010, 63).

리브록은 이러한 과학적 결론에 도달하자 엄청난 이론적 방향—이산 화탄소 고정술이나 핵발전소 찬성—을 보여주었다. 생태계에 덮친 엄청난 재앙과 같은 지구온난화의 상황은 이미 생태계의 자정능력을 넘어서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생태 민주주의는 생태계의 자기생산능력을 통해서 자연 치유될 것이라는 녹색낭만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가타리의 기계개념에 자기생산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동시에 색다른 기계작동이 전체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상은 새롭게 재조명될 수 있는 사상이며, 친환경, 녹색기술에 한정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색다른 분자적 주체성의 출현이 생태계나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생태 민주주의는 생태계의 순환과 재생, 창발의 힘을 공동체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씨줄날줄을 엮고 판을 짜야 하며 동시에 기존의 기업과 국가의 생태파괴적 움직임에 맞선 특이한 기계작동과 같은 주체성 생산과 그 색다른 삶의 방식을 통해서 대안적 움직임을 마련해야 한다.

3. 가타리의 『세 가지 생태학』과 생태 민주주의의 구도

1) 마음생태와 생태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정상적인 생활이라고 여겨지는 생활양식이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게 된 이 시점에도 자본주의는 무의식을 주조해내서 마치 ‘자본주의는 평화롭고 안전하다’라는 방식의 이미지/영상을 계속적으로 발신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주체성에 따르면 모든 특이성은 회피되던가, 아니면 전문화된 준거설비와 준거틀의 지배하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자본주의적

주체성은 어린이나 사랑·예술의 세계뿐만 아니라 불안·광기·고통·죽음·우주 속의 방향 감각이라는 차원에 속하는 모든 것을 관리하려고 노력한다(가타리 2003b, 34).” 자본주의는 정상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일상생활을 마치 가장 표준이 되는 준거모델로 설정하고, 그 이외에는 문명화가 안 된 야만상태로 규정하면서 생활세계를 장악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가 떠받치고 있는 정상생활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면서도, 이것이 비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색다른 주체성 생산을 통해서 생태 민주주의의 대안을 사고하는 것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가타리의 생각 속에서 주체성 생산 혹은 특이성 생산이 중요한 이유는 자본주의가 하나의 일관생산라인을 구축하려고 하면서도 네트워크 형태로 공동체나 생태계와 관계하기 때문이다. 이 네트워크는 큰 틀이나 구조에 의해서 구조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기계부품이 연결되고 기능연관을 맺어서 움직이는 형태이다. 마치 생태계에서 부분의 변화가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준다는 가타리의 생각처럼 네트워크 내에서도 기계작동의 변화가 전체 네트워크에 심대한 변화를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색다른 삶의 방식과 사유양상, 행동방식을 보이는 특이한 사람이 출현하게 되면 네트워크나 생태계에 의존하는 자본주의는 고장나거나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타리는 『세 가지 생태학』에서 마음생태의 영역을 주체성 생산이라고 사고하고 있다. 여기서 마음생태는 정신세계조차도 생태계 유형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 차원을 구성하는 정신세계의 변화를 도모하는 관점이다.

가타리가 겨냥한 마음생태의 영역이 생태 민주주의 영역에서 중요성을 갖는 이유는 녹색근본주의(혹은 심층생태론)를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 생태영성이라고 일컬어지는 마음생태의 영역은 근본생태론자에게는 전일적 생태계를 직관하는 마음의 흐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근본생태론자의 생태영성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은 전제가 필요하다.

드볼과 세션스(Devall and Sessions 1985, 67)에 따르면 심층생태론의 두 가지 기본원리는 자아실현과 생명중심적 평등이다. 자아실현은 각각의 개인을 넘어서 좀 더 넓은 의미의 유기체적 자아와 동일시를 의미한다. 혹은 그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자아 안의 자아(Self-in-self)’이다. 이 관념은 유기적 통일체이자 모든 개체가 얽혀 있는 생태적 거미줄 같은 전일적 자연에 대한 깊은 의식과 지각을 배양하는 것이다(드라이제크 2005, 275).

심층생태론 혹은 근본생태론자들은 개인을 넘어선 광역적 초개인적 자아의 ‘자아실현’과 전일적 자연생태에 대해서 깊은 지각과 직관을 갖는 것을 생태영성적 사유방식으로 보고 있다. 녹색합리론자들은 이 근본생태론자들을 녹색낭만주의로 규정하며, 끊임없이 논쟁의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 이를테면 The Greens(녹색당) 내부에서의 근본파와 현실파의 끊임없는 논쟁과 평행을 달리는 토론 등이 그러한 녹색합리주의와 녹색낭만주의라는 생태 민주주의 진영의 양 대축 간의 골 깊은 사상적 맥락의 차이를 보여준다.

가타리는 심층생태론(혹은 근본생태론자)들의 전일적 자연과 직관과 감성으로 연결되어 있는 영성의 문제를 마음생태의 영역으로 재규정하면서 새로운 논제를 도입하고 어떤 사상적 맥락의 보다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만들어낸다. 가타리가 보기에는 영성의 문제가 다루고 있는 직관과 감성의 문제는 하나의 의식이나 전의식의 영역이 아니라 무의식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정신생태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전일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생태계에 직관적이고 감성적으로 접속한 영성적 사고는 자본주의가 무의식을 전일적으로 주조하려는 방향과 달리, 생태적 지혜라고 할 수 있는 직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망이 창발하는 새로운 주체성을 제기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생태계에서 주체성 생산은 색다른 무의식의 차원이 등장하는 것의 문제이며, 아주 특이한 생활

방식이 기존 삶의 방식과 다른 형태로 무의식적이고 직관적인 형태로 창안 되는 것의 차원을 의미한다.

가타리는 심층생태론(혹은 근본생태론자)들의 생태영성적 수준의 논의를 끌어들이어서 자본주의사회에 대안적 삶의 형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논의를 업그레이드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다 더 급진적인 논의인 주체성 생산이라는 색다른 과제를 제출한다. 이러한 주체성 생산은 대안사회가 다가오기 위해서는 생태계에 직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마음생태계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변화가 촉발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과는 다른 삶의 양식의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마음생태의 문제는 자본주의적 주체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다르게 살도록 마음을 갖는다는 문제를 윤리적-미학적 주체성 생산의 문제로 만들어낸다.

가타리는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주체성이, 개인화되고 자아화되고 동일시에 폐쇄된 경계 구역 도처에서 생기고, 사회체 쪽에서만 아니라 기계적 계통, 과학 기술적인 준거 세계, 미학적 양식 쪽에서, 더욱이는 시간·신체·성 등의 새로운 개인 이전의 이해 쪽에서 도처로 열려야 한다(가타리 2003b, 56)”라고 하면서 심층생태론의 생태계라는 광역적 자아에 접속한 직관적 자아에서 도처로 열려 있는 특이화된 주체성으로 나아간다. 생태 민주주의에서 마음생태는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발생기의 주체성이라는 그림의 구도를 그려낸다. 동시에 생태 민주주의가 단순히 체제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분자화된 개인과 집합적 주체들의 무의식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문제들까지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생태 민주주의의 세 가지 다이어그램 중 하나는 마음생태이며, 녹색진영의 근본생태론자(혹은 심층생태론자)들을 이 구도 속으로 끌어들이는 정치적 효과를 갖고 있다. 생태 민주주의는 마음의 문제에서 시작되는 모든 대안적 주체성 생산의 차원을 포괄하며 그러므로 개인과 공동체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분자화된 개인 혹은 집단의 주체성

생산이 공동체 연결망에 심원한 역학적/화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것에 대해서 열려 있다.

2) 사회생태와 생태 민주주의

사회생태는 사회구성원들이 만들어내는 생태계의 지도이며, 이 지도 그리기를 통해서 공동체, 집단, 사회적 기계장치(군대, 감옥, 병원, 학교) 등이 하나의 배치를 이루게 된다. 가타리가 사회생태를 언급할 때 강조하고자 했던 지점은 주체집단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점이며, 사회적 기계 장치의 골간을 이루는 가족형태와 완전히 다른 형태의 주체집단이 등장하여 사회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의 여부에 관련된 것이었다. 가타리가 초기에 ‘예속집단’과 ‘주체집단’을 구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 생태학』에서 정체성이 분명하고 고정된 영토에 가두어진 인칭론적 집단과 사회체 속에서 열린 질서를 구축하고 되기(becoming)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주체집단을 구분한다.

사회생태학의 특유한 원리는 다양한 규모의 인간 집단에 대한 감정적이고 실용적인 투여(개입)을 촉진하는 것과 관련된다. ‘집단 에로스’는 추상적 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생태학에 속하는 일차적인 주체성의 질적으로 특정한 재전환에 일치한다. 여기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나타난다. 즉 나-너-그, 아버지-어머니-아이……라는 양식에 기초한 주체성의 인칭론적 삼각형의 구성이든가, 아니면 사회체와 우주에 광범위하게 개방된 자기 준거적인 주체-집단의 구성이라는 선택지가 나타난다(가타리 2003b, 46).

가타리에 있어서 사회생태는 특이성 생산으로 인한 주체집단의 출현이 기준에 딱딱하게 경색되어 있는 사회생태계를 변화시켜 대안을 성립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하였다. 가타리는 색다른 주체성 생산이 사회생태계를 변화시키고, 기존의 질서를 교란하면서 이 특이한 주체집단으로 인해 사회생태계의 구성요소와 배치가 바뀌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것은 생태 민주주의가 어떻게 사회생태를 바꾸어서 현재의 자본주의의 정상적 삶을 떠받치고 있는 시스템을 변화시킬 것인가를 사고하고 있는 부분이다. 가타리의 사회생태는 생태계가 갖고 있는 부분의 합이 전체 이상의 효과를 발휘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색다른 부분의 출현이 전체를 변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조망된다. 대부분의 정치구조는 다분히 숙명론적이고 비관적인 움직임 속에서 사회를 구조적 공학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해 가타리는 구조적 수준 이전에 존재하는 기계(machine)를 통해서 사회생태 내부에 있는 공동체나 집단들의 자율성을 사고한다. 이 기계는 폐쇄되어 있고 닫히며 동일한 작업을 반복하며 재생산하는 기계학(mechanism)적 기계가 아니라 외부로 향해 열려 있고 자기생산하는 기계론(machinism)적 기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가타리가 사회생태를 기계적 영토성으로 사고하는 방식은 기계가 무엇인가라는 난독증을 발생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네트워크나 공동체의 기계적 배열장치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사회생태 내부에서의 네트워크나 공동체를 염두에 두면서 발생하는 주체집단 혹은 기계에 대한 사유는 사회생태계가 단순히 정치구조에 의해서 구조되는 영토가 아니라, 내재적인 영토 속에서 자기생산(auto-poiesis)하는 기계작동과 같은 움직임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자본주의는 거대한 틀이나 구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작은 기계부품의 연결과 기능연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작은 기계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나 네트워크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자본주의는 고장나거나 다른 배치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집단이 자신의 기계작동을 변형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지며, 공동체나 네트워크의 기계작동 자체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가타리의 사회생태는 특이성 생산이라는 방향성 속에서 가족, 군대, 감옥, 병원, 학교 등에 예속된 집단이 아니라, 아주 특

이한 움직임은 형성하는 공동체나 네트워크가 사회생태계에 미칠 역학적/화학적 변형에 대해서 사고하는 것이다.

사회생태는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이 관계망이 어떤 배치를 갖는가를 문제삼는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 고독, 무위의 상황에 직면한 많은 현대인들에게 아주 가깝고도 대안적 삶의 형태를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가타리의 공동체나 사회기업, 협동조합 등의 제3부문에 대한 언급은 이러한 현대사회의 대안적 모델의 직접적 제기를 즉각적으로 이루는 특이성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사회적 유용성을 인식한 사회단체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연계가 제3부문—사적이지 않고 공적이지도 않은—재정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확대할 수 있는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해 둘 필요가 있을 듯싶다. 제3부문은 인간 노동이 기계 노동을 대신하도록 할 정도로 끊임없이 확대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이른바 사회 복귀의 계약으로서가 아니라 권리로서 인식되는—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서, 문제는 재특이화의 생태학의 방향으로 가는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기획들을 수행하는 수단의 획득에 대해서 윤곽을 그리는 것이다(가타리 2003b, 52).

가타리의 사회생태에 대한 생각은 북친의 사회생태주의의 기본 구도를 가져다 쓴다. 북친은 사회를 2차적 자연이라고 부르고 문화적인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근본생태론자들이 인간에게 팔호를 치는 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다. 사회생태론은 인간중심주의와 계몽주의적 이성과의 일종의 타협을 하는데, “북친은 전통적인 이성과 최신 과학과 근대 기술의 사용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드라이제크 2005, 308).” 이러한 사회생태주의적 사고방식은 인간이 저지른 환경파괴와 생태계 오염의 문제를 인간이 정정할 수 있다는 점을 신뢰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인간중심주의적 발상을 갖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사회변혁과 과학기술에 대한 공생적 적

용으로 사고한다. 좌파녹색주의자와 녹색산업 등이 이 북친의 사회생태론의 스펙트럼에 해당되며, 생태전환의 과제를 사회변혁과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가타리는 북친의 사회생태론이 갖고 있는 사회변혁의 상을 유토피아적 해방의 상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 사회적 관계 내부에서의 배치변화가 갖는 영구적인 개량(=혁명)으로 바꾸어낸다. 북친의 의도는 근본생태론자와의 대립을 통해서 사회생태론을 통해서 인간과 기술, 이성에 대한 가능성을 놓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타리는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단순히 사유에서가 아니고 실재계(the real)에서 움직이는 구체적인 운동의 벡터를 의미한다고 사고한다. 그래서 사회생태라는 다이어그램의 구도를 그려내면서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녹색좌파운동 및 녹색산업의 방향성을 포괄한다. 물론 사회생태론자들은 반자본주의의 입장에서만 서 있었을 뿐 공동체나 네트워크, 협동조합 등이 어떻게 대안적으로 사회생태를 변화시키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었다. 이것은 자본주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특이성 생산이자 배치의 변화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가타리의 사회생태라는 영역으로 나타난다.

생태 민주주의는 사회적 관계와 배치의 변화를 가능케 할 주체집단의 등장과 사회적 연결망에서의 아주 특이한 배치가 설립되는 과정 등을 그려낸 가타리의 사회생태의 영역의 문제가 정치적 구도로 나타나는 방식이다. 그러나 생태 민주주의는 이미 사회생태 내부에서 작동중인 내재적인 민주주의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태와 별도로 정치구도를 사고하지 않아도 된다. 사회생태계 내부에서의 정치모델인 생태 민주주의는 생활정치이며, 내재적인 혁명의 정치이다. 사회생태론자인 북친이 사회변혁과 과학기술의 사용을 언급하면서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사회생태에서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면, 가타리의 사회생태 개념은 아주 구체적인 전략전술과 각론으로 들어가 있다. 그 사회생태에 대한 내용은 생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내재적 장에 대한 언급이다.

3) 자연생태와 생태 민주주의

자연생태는 인간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관리하고 조절하느냐에 전적으로 좌우되는 상황에 있다. 자연생태의 영역은 마음생태, 사회생태와 마찬가지로 주체성 생산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에 의해서 자연은 재창조될 수 있는 영역이 된다. 펠릭스 가타리의 『세 가지 생태학』에서의 자연생태에 대한 범주의 논의는 환경관리주의의 논의와 같은 지평을 생태 논의의 가장 기초적인 논의의 일부로 끌어다온다. “환경생태학의 특유한 원리는 거기에서는 최악의 파괴국으로부터 부드러운 변화까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연의 균형은 이제 점점 인간의 개입에 달려 있다. 아무튼 지상의 공기 속에 있는 산소, 오존, 탄산가스의 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거대한 계획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고 할 것이다(가타리 2003b, 54).” 자연생태에 대한 논의에서 가타리는 인간의 개입과 계획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생태 민주주의가 만들어낼 기획이 환경관리주의를 배제하지 않음을 강조한다.

자연생태 논의에 있어서 다분히 인간중심주의적 패러다임이 도입되는 이유는, 인간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력해졌기 때문이며, 인간에 의해서 자연생태가 재창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타리의 언급에서 자연생태 영역의 실천적인 기획이 환경관리주의적 담론으로 서술되고, 계획과 개입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보통 생태근본주의와 자연생태를 연결시켜서 사유하는 기존 패러다임과는 달리 환경정치적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타리는 환경관리주의가 주요하게 비판받던 논점이었던 인간중심주의에서 탈피하지 못했다는 지점을 생태학의 세 가지 다이어그램의 지도를 그리는 과정에서 하나의 영역으로 배치함으로써 극복한다. 그것은 인간중심주의를 기각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인간이 해야 할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정확히 위치짓는 것의 문제였던 것이다. 그것은 자연과 인간의 이분법적 대립관계를 설정하면서, 자연을 인간의 티가 묻지 않은 근원적인 상태로 두려는 자연주의자적 사유방식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인간중심주의적인 세계관이나 도구주의적 발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생태와 공존하며 상호작용하면서 반드시 해야 할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정확히 언급하는 것이다.

환경보호론자들의 환경의 특성에 대한 논의는 크게 5가지로 집약된다.

- 1) 환경문제는 오랜 시간의 경과 후에 등장한다. 왜냐하면 자연은 스스로의 정화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 환경은 한번 파괴되거나 오염되면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린다. 3) 환경문제의 원인은 불분명하거나 복잡적이다. 환경문제는 복잡한 생태계의 과정을 거쳐 오랜 세월이 걸려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하나로 규정하기 힘들다. 4) 환경문제의 피해자는 불특정다수이다. 5) 정치적 특히 국제정치적 성격이 강하다(김미자 2010, 21-22).

이러한 환경이 갖는 특성 때문에 자연생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때 지역플뿌리정치, 생활정치, 국제정치와 따로 떼어놓고 얘기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지점은 생태 민주주의가 하나의 주권체제 내의 정치양상이 아니라, 국제적인 무대를 배경으로 한 정치양상을 띠게 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자연생태라는 세 개의 다이어그램 중 하나의 다이어그램은 생태 민주주의라는 정치의 내용 중 일부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그것이 갖고 있는 정치적 기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

각 국가의 환경정책의 문제에서 핵심적인 현실의제가 되어왔던 것은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생물다양성 감소, 열대림 파괴, 유해폐기물 교역, 토양오염과 사막화 등의 문제였다. 이 모든 복합적인 문제는 세계적 차원의 환경정책의 필요성이 증가되었음을 의미한다. 세계환경정책의 과정에서 북반부의 잘 사는 나라와 남반부의 못사는 나라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골 깊게 전개되고 있고, 남반부의 성장의 의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는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러나 남반부 나라의 빈곤의 문제는 사실상 환경문제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와 동떨어져서 논의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빈곤은 환경문제와 함께 다가오며, 그 두 가지 모두를 함께 풀지 않으면 해답을 얻을 수 없다.

최근 세계적인 차원의 환경정치는 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어떻게 현실적 의제로 수용할 것인가라는 쟁점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은 “지구라는 이 유한하고 닫힌 시스템에서 경제성장이 이 수준을 넘어서서 자연의 재생과 수용능력을 초과한다면 생태적 복구비용은 생산이윤보다 더 빨리 성장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난해진다(김미자 2010, 126)”라는 진단을 기초로 하고 있다. 여기서 성장(growth)과 발전(development) 개념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경제성장 없이도 공동체경제의 발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보통 규모의 경제의 측면에서 성장률을 늘리는 자본과 국가의 경제 패러다임과는 달리, 공동체 경제는 내포적인 수준에서 발전을 달성한다. 예를 들어 협동조합의 성장은 규모를 늘리기보다는 순환과 재생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정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의제는 사실상 내포적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활동의 주체성 생산의 영역을 사고해야 하는 지점에 있다.

생태 민주주의는 위키피디아(wikipedia)사전에서 ‘내포적 민주주의’의 하위범주로도 나타나는데, 경제성장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 그러하다. 한국의 환경정치가 외연적 성장이 아니라 내포적 발전을 중심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현 정부 들어서 추진된 녹색뉴딜사업의 핵심사업 9개를 살펴보면, 4대강 살리기, 녹색숲 가꾸기, 녹색교통망 확충, 그린홈, 그린스쿨사업, 폐기물자원 재활용, 雨水유출시설, 중소댐, 그린카 및 청정에너지 보급, Eco River 조성,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으로 요약될 수 있다(김미자 2010, 212). 이러한 녹색뉴딜사업의 골자는 여전히 성장의 보족물로서 녹색을 사용하고 있을

뿐 산업체계 전반을 녹색으로 구조조정하여 내포적 민주주의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기획이 아니라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내포적 발전의 중심을 이루는 공동체의 내재적 차원의 주체성 생산이 사고되는 것이 아니라 포장만 그럴듯한 관행사업의 기획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녹색의 수식어구 속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환경정치가 아니라 일자리를 스스로 내재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공동체경제의 활성화가 환경정치의 관건이다. 환경정치의 핵심의제가 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포적 민주주의로의 경제 주체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은 공동체경제의 활성화를 통해서 특이성 생산을 이루는 기획으로 나타나야 한다. 공동체경제는 발전하지만 성장하지 않는 경제의 특징을 보여주며 국가와 자본의 기획에 따라 조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인 차원에서 생산되는 색다른 영역이다.

생태 민주주의 영역에서 자연생태는 일국적, 혹은 국제적 차원의 환경정치의 필요성으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환경에 개입하고 관리하는 인간주체의 역할과 기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태 민주주의의 환경정치는 성장의제에 대한 제고와 내포적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필수적으로 동반해야 한다는 과제를 갖고 있다. 이러한 지점에서 생태 민주주의는 협동, 연대, 연합을 통해서 시민공동체가 내적으로 결속되는 바에 따라서 시장과 무역의 자유경쟁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시스템으로부터 패러다임 전환을 이룰 수 있느냐의 여부에 좌우된다. 자연생태는 마음생태, 사회생태와 연결되어 세 가지 원으로 구성된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내며, 환경관리주의적 메커니즘을 생태 민주주의 시각에서의 국가적 차원 혹은 세계적 차원의 환경정치로 만들어낸다. 이 환경정치는 성장주의와 대비되는 내포적 민주주의의 가능성에 따라 생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4. 결론: 생태 민주주의의 관계망과 주체성 생산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한국에서의 정부정책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논의에서 ‘녹색성장’의 논의로 이행하면서 발전과 성장에 대한 엄밀한 구분을 도외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성장의 명제는 규모의 경제에 따라 질적인 측면보다 양적인 측면에서의 확장을 사고한다. 그리고 그러한 성장은 확장의 외적 한계인 자연환경의 유한성에 가로막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생태 민주주의가 제안하는 ‘내포적 발전’의 명제는 성장의 외연적 확장이 아니라, 협동조합, 소비자클럽, 공동체, 생산자조합 등이 골간을 이루는 공동체경제의 발전을 사고하는 것이다. 이것은 탈성장, 제로성장, 역성장의 명제와도 직결되는 것으로서 가난하고 소박한 삶을 살더라도 보다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즐기려는 현재의 성장주의적 삶은 지구에 무리한 하중을 주게 되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한국사회에서는 보다 적게 나누어서 일하고, 함께 협동하여 즐기는 생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사회 구성원들이 성공과 승리에 대해서 다소 열광하는 이유는 자신의 곁에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혼자만의 요행을 바라거나 성공을 통해서만 자신이 보장되고 유지될 수 있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내포적 발전과 같이 공동체가 함께 발전하는 상황이라면 개인적 성공에 대한 열광이나 경쟁이 들어설 자리는 없어질 것이다.

내포적 민주주의는 생명, 생활, 생태 영역에서의 변화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먼저 생명을 도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구라는 별에서 공존해야 할 들숨날숨을 쉬는 존재로 대하는 태도는 바로 인간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구제역과 같은 초유의 사태는 생명을 경제적 가치로만 따지면서 살처분이라는 생매장 상황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생명가치와 존엄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동물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 전반의 생명에 대한 무의식적 토대와 관

련된다. 생명권은 인권의 보다 강력한 확장이기 때문에, 모든 권리를 갖지 못한 존재들에 대한 윤리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한국사회의 생태 민주주의는 생명권에 대한 권리적 입법화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그 경우 생명에 대한 가장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인간이 공존하는 상황이 만들어낼 최대의 효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사회의 공동체가 자신의 구성원으로 동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동물의 복지, 권리, 자유를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관계의 변화로 인해 가장 윤리적이고 미학적인 주체성을 생산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사회에서 생태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것의 의미는 현재의 삶의 양상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회가 나아가려는 방향성을 가장 단순하고 소박하며 가난한 삶의 방향성으로 바꾸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사회의 각종 정부정책이 떠받치고 있는 정상적인 삶이라는 유형인 TV, 육식, 아파트, 자동차 등이 가장 반생태적인 삶의 유형이라는 직시하고 보다 생활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생활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사회의 대안적인 운동은 자본주의적 진보와 민주주의라는 야누스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삶을 바꾸는 생활정치의 기획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색과 녹색을 구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적색은 투쟁의 미래로서의 유토피아를 생각하지만, 녹색은 평화로운 지금 당장의 특이한 삶을 호출한다. 녹색이 보여주는 특이성은 대안학교, 공동육아, 생활협동조합, 마을기업들 등에서 나타난다. 녹색과 적색의 연대는 필요하지만 한국사회의 생태 민주주의의 정립을 위해서 녹색의 구별정립이 현 단계에서 더 요청된다. 그래서 녹색당운동과 같은 의미심장한 운동은 현 시점에서 아주 유효하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생태 민주주의는 ‘생태적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생태적 마인드의 색다른 변화를 촉진할 것이다. 후쿠시마원전 사태와 같은 초유의 상태가 여전히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탈핵이라는 과제는 생태적 전환의 제1명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같은 정부정책은 일자리와 복지와 연동되어 사고되었던 것이 기존의 정부의 사고방식이었다. 그러나 생태 민주주의의 내포적 발전이라는 상에 따라 디자인하게 된다면 공동체적 관계망이 보다 열리고 주체성 생산에 입각해서 설계될 것이다. 공동체기업의 문제는 공동체적 관계망이 생태적 관계망처럼 시너지 효과를 갖는다는 데서 착목하지만, 더 나아가 아주 색다른 주체성이 생성되어 전혀 기억에도 없는 관계망을 짜낼 수 있는 내재적인 영토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부분의 변화가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주는 이미지로 표현된 주체성 생산이라는 개념은 사회적 기업과 공동체 경제에 내재적인 장을 만드는 근본적 구성 원리이어야 하는 것이다.

가타리의 『세 가지 생태학』에서 언급되었던 마음생태, 사회생태, 자연생태라는 전략전술은 한국사회의 생태 민주주의를 앞당기기 위해서 매우 유효한 구도를 그려낼 수 있는 자산이다. 마음생태의 주체성 생산, 사회생태의 사회적 배치의 변화, 자연생태의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생각은 생태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내포적 발전전략이 어떤 방식으로 관철될 수 있는 지에 대한 과제들을 보여준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극심한 현재의 상황은 정부정책조차도 저탄소녹색성장이라고 언급하게 만들 정도로 문명사적 전환을 만들어내야 할 정도로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삶의 과도와 사유방식, 실천방식으로부터 벗어난 아주 특이한 삶의 출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주체성 생산이라는 가타리의 중심명제는 생태 민주주의가 단순히 유토피아적 상이 아니라 현실세계에서 만들어내야 할 과제라는 점을 의미한다. 이를 테면 경쟁과 배제의 장이 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시스템 자체를 문제 삼고 협동, 연대, 연합의 원리에 따라 색다른 공동체적 관계망을 만드는 것 자체도 주체성 생산이다. 이러한 관계망이 통일성과 통합의 원리에 따라 고정되어 있는 집합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이성 생산에 의해서 전체가 유연하게 변화하고 외부에 대해서 열린 공동체라는 관점이 중요하다.

2012년은 유엔이 지정한 ‘협동조합의 해’이기도 하다. 협동조합의 원리는 생태 민주주의가 골간으로 삼고 있는 내포적 발전의 구도를 아주 잘 드러내는 경우이다. 자유무역과 시장경제를 원리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시스템이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한 체계라는 점이 분명해 지는 현 시점에서 그렇다면 생태적 전환의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들이 도처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사회 역시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좌파를 중심으로 봇물처럼 나오지만 대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 협동조합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힘없는 사람들이 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공동체경제의 질서이다. 협동조합은 아주 소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내포적이고 공생과 공존의 경제를 만들어낸다.

가타리가 언급한 주체성 생산을 통해서 관계망을 창발하고자 한다면 협동조합이라는 대안의 질서와 접속할 필요가 있다. 가타리의 『세 가지 생태학』에서의 핵심적인 논의였던 윤리적이고 미학적인 주체성 생산이라는 과제는 협동조합과 같은 공동체경제를 창안해 내는 기본 원리가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사회의 생태 민주주의의 미래설계에 가타리의 『세 가지 생태학』의 마음생태, 사회생태, 자연생태의 구도는 많은 시사점과 참조점을 던져준다고 할 수 있다. 생명위기 시대에 직면해서 생태 민주주의를 보다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는 과제는 가타리의 『세 가지 생태학』에서의 주체성 생산의 사상을 오늘날의 생태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실천전략으로 호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2~~

참고문헌

가타리, 펠릭스. 2003a. 『카오스모제(1992)』. 동문선.

- _____. 2003b. 『세 가지 생태학(1982)』. 푸른숲.
- _____. 2004. 『가타리가 실천하는 욕망과 혁명』. 문화과학사.
- 김미자. 2010. 『환경정치론』. 경북대학교 출판부.
- 테자르텡, J.R. 1999. 『환경윤리』. 자작나무.
- 드라이제크, 존 S. 2005. 『지구환경정치학 담론』. 에코리브르.
- 러브록, 제임스. 2004. 『가이아』. 갈라파고스.
- 모리슨, 로이. 2005. 『생태 민주주의』. 교육과학사.
- 멘더, 제리. 2002. 『텔레비전을 버려라』. 우물이있는집.
- 사단법인 카라. 2007. 『동물보호 전문지 <숨>: 인권을 넘어서 생명권으로』.
- 최장집. 2010.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 카프라, 프리츨프. 1998. 『생명의 그물』. 범양사.
- 포스터, 존 벨라미. 2010. 『생태혁명 (지구와 평화롭게 지내기)』. 인간사랑.
- 홍성태. 2004. 『생태사회를 위하여』. 문화과학사.
- FAO(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2006. *Livestock's Long Shadow—Environmental Issues and Options*(<http://www.fao.org/docrep/010/a0701e/a0701e00.HTM>).
- IPCC(Intergovernment Panel of Climate Change). 2007. *AR4—Climate Change 2007*(<http://www.ipcc.ch/>).
- Meadows, Donella H., Jorgen Randers, and Dennis L. Meadows. 2004. *Limits to Growth: The 30-Year Update*. Chelsea Green
- Patterson, Charles. 2002. *Eternal Treblinka: Our Treatment of Animals and the Holocaust*. Lantern Books
- Tokar, Brian. 1987. *The Green Alternative: Creating an Ecological Future*. R&E Miles

투고: 2011.10.2 심사: 2011.10.20 확정: 2011.11.7